

# 퀸즈의 서울 탐구

이 절충적인 전시는 80년대의 성년 민중미술과 새로운 세대의 남한과  
 코리안 아메리칸 미술가들의 한층 지성적인 정체성 탐구사이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대양(大洋)보다도 더 넓은 간격을 메우려고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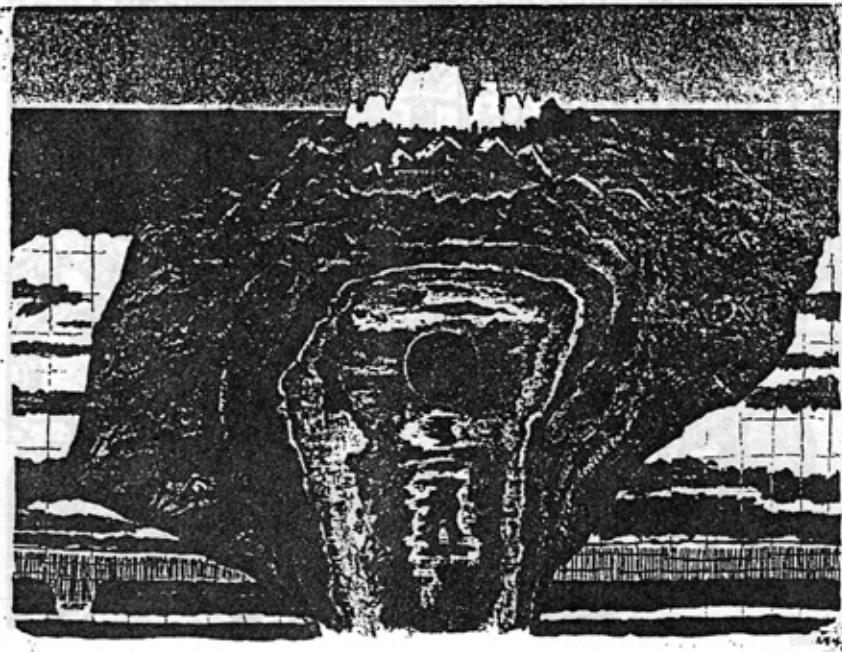
김 레빈(Kim Levin)

자 동인형-민영순의 「기계적인 신부의  
 관례적 노동」이 우리를 맞이한다.  
 그 인형은 아내다운 정서를 산뜻하게 명기  
 한 카페트위에 서 있다. “환영합니다/새 봄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세요/어느 때와  
 같이 지금도/나는 당신의 미천하고 유순한  
 하니/당신의 위안녀/당신의 정숙한 여인입  
 니다.” 카페트위에 서서 정교하게 성장한  
 인물은 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  
 막 파티에서 고집센 로보트는 몸을 움직이  
 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보트의 녹음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이렇게  
 속삭였다. “나의 비무장된 욕망은 어디 있  
 나요 자율이 허락된 나의 통치체(統治體)  
 는 어디 있나요?”

마이런 킴과 마이클 주가 더 잘 들어맞는  
 이름들일지 모르지만, 민영순의 작품은 배  
 우 강렬한 작품이다. 벽에 붙은 라벨은 그  
 것을 한국 소녀의 '인형'에 대한 동시대 크  
 기의 개조물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민  
 영순의 인물은 또한 공교롭게도 전통적인  
 한국 신부의 살아 있는 것 같은 실물 그대로  
 의 복제(뒤상에 대한 동의를 표하는)이다.  
 서울 경복궁에는 기념 사진을 목적으로 신  
 혼부부에게 옛날 결혼예복을 빌려주고 사  
 진을 찍는 사업을 하는 사진사가 있다. 『태  
 평양을 건너서』전은 어떤 주제를 내건 전  
 시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대 한국



민영순  
 「기계적인 신부의 관례적 노동」  
 혼합매체와 녹음된 소리  
 173X61X61cm 1993



손장섭 「일출」 캔버스에 유채  
200X262cm 1991

이 문화적 정체성의 복잡성과 또한 코리언과 미국의 정체성의 복잡성이라는 이중의 주제를 가진 전시이다.

정체성은 한국에서 언제나 논쟁거리였다. 침략받고 분할되고 점령당해 온 한국의 오랜 역사 때문에 한국 국민과 문화의 정체성은 언제나 적응과 저항의 불안정한 혼합이었다. '한'은 단지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는 소용돌이치는 강의 이름이 아니라, 전체가 한국인 동료가 나에게 말한 적이 있던 "슬픔과 분노"를 의미하는 국민적 특성이다. 여성의 정체성으로 말한다면, 한국 사회는 이해할 만한 한층 성차별이 심한 사회중의 하나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미술가들에게 그 계기에 대한 중요한 이슈의 시발점을 제공하는가? 과거 몇 십년 동안 까다로운 한국 미술의 대부분은 그 자신의 맥락과 정체성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회피하면서 서구의 외양(양식과 후기양식)을 채택하고 적응하는데 바빠왔다. 80년대의 정치적 소란의 시기 동안, 급진적인 사회정치적 활동가들의 미술운동은 항거자들이 있는 거리로부터 끌어온 '민중'(인민의 미술)이라고 불렸다. 민중미술가들은(비평가 루시 리파드의 작업에 의해 고무되어 왔다고 소문난) 저항의 역사를 묘사하고 서구의 방법들을 거부했다. 그들은 멕시코 사회주의 리얼리스트



김홍주 「무제」 혼합재료 210X102cm 1987

들로부터 차용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한국의 기법과 양식들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이 질충적인 전시는 80년대의 성난 민중 미술과 새로운 세대의 남한과 코리언 아메리칸 미술가들의 한층 지성적인 정체성 탐



이수경  
「캐리어 우먼」 혼합매체  
44X33cm 1993

정체성은 한국에서 언제나 논쟁거리였다.  
침략받고 분할되고 점령당해 온 한국의 오랜 역사 때문에 한국 국민과 문화의 정체성은 언제나 적응과 저항의 불안정한 혼합이었다.



민족성과 '외국계  
 시민'의  
 정체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한  
 최근의 선입견에서,  
 우리는  
 국가적·민족적·개인  
 적 정체성이 충돌하고  
 희미해지고 분기되는  
 국인 혼란스러운  
 경계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김봉준 「4월 15일 투쟁」 종이에 수채 50.8X121.02cm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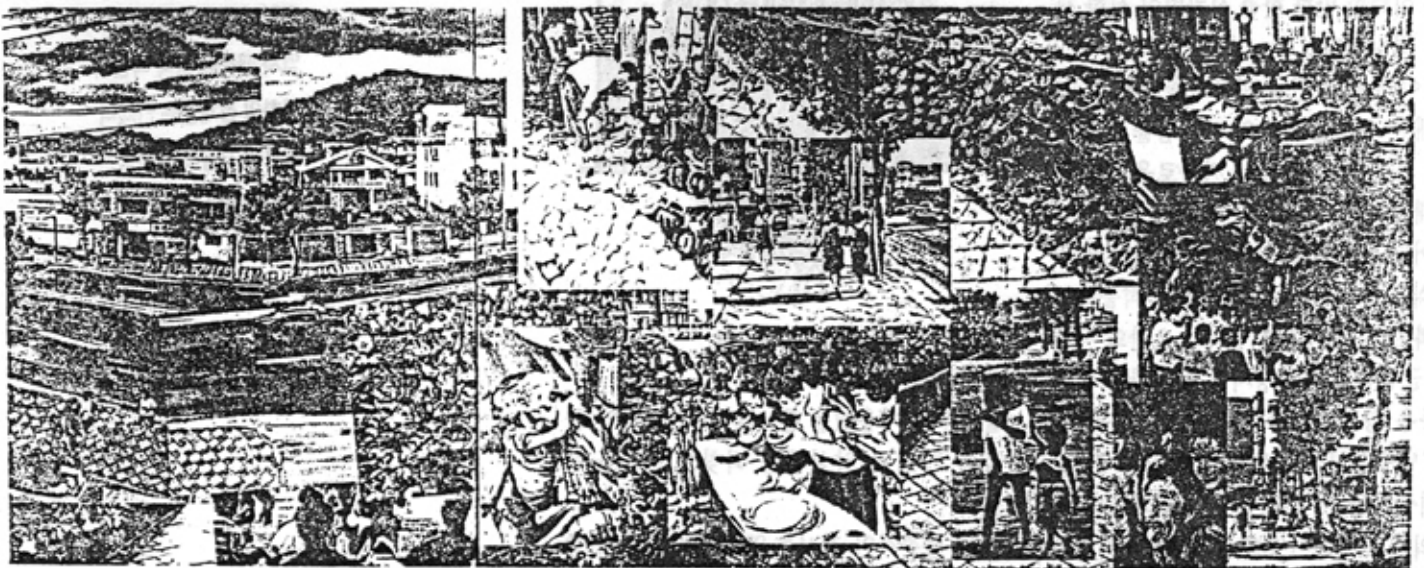
구사(救世)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대양(大洋)보다도 더 넓은 간격을 메우려고 기도한다. 모든 잡동사니에 대해, 이영철과 제인 파비에 의해 조직된 『태평양을 건너서』전은 성공적이다.

켄즈미술관 이층에는 거리에 걸리는 거대한 그림들에(걸개라고 불리) 관한 비디오 기록과 함께, 가장 훌륭한 민중미술 가운데 몇 작품이 최근의 한국 작품과 한 공간에 전시되어 있다. 박불동의 후기 산업 사회의 사진 콜라주와 이종구의 농부 아버지의 쌀자루 초상(두 작품은 모두 1989년 아

티스트 스페이스의 민중미술 전시(출품되었다)를 포함하고 있는 작품 선정은 자신의 정신을 잃지 않은 채 여러세기동안 흥내 내기에 몰두해 온 문화에서 진정성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의 정체성은 과거 모델에 대한 80년 대식의 변형이나 복합적인 현재를 포착하기 위한 90년대의 시도에서 발견되는가? 그것은 최민화의 나무뒤에 숨어있는 부랑자안에, 혹은 오늘날 서울의 중심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이상한 아말감(합성물)인 「메

최진욱 「하교길」 캔버스에 아크릴릭 227X546cm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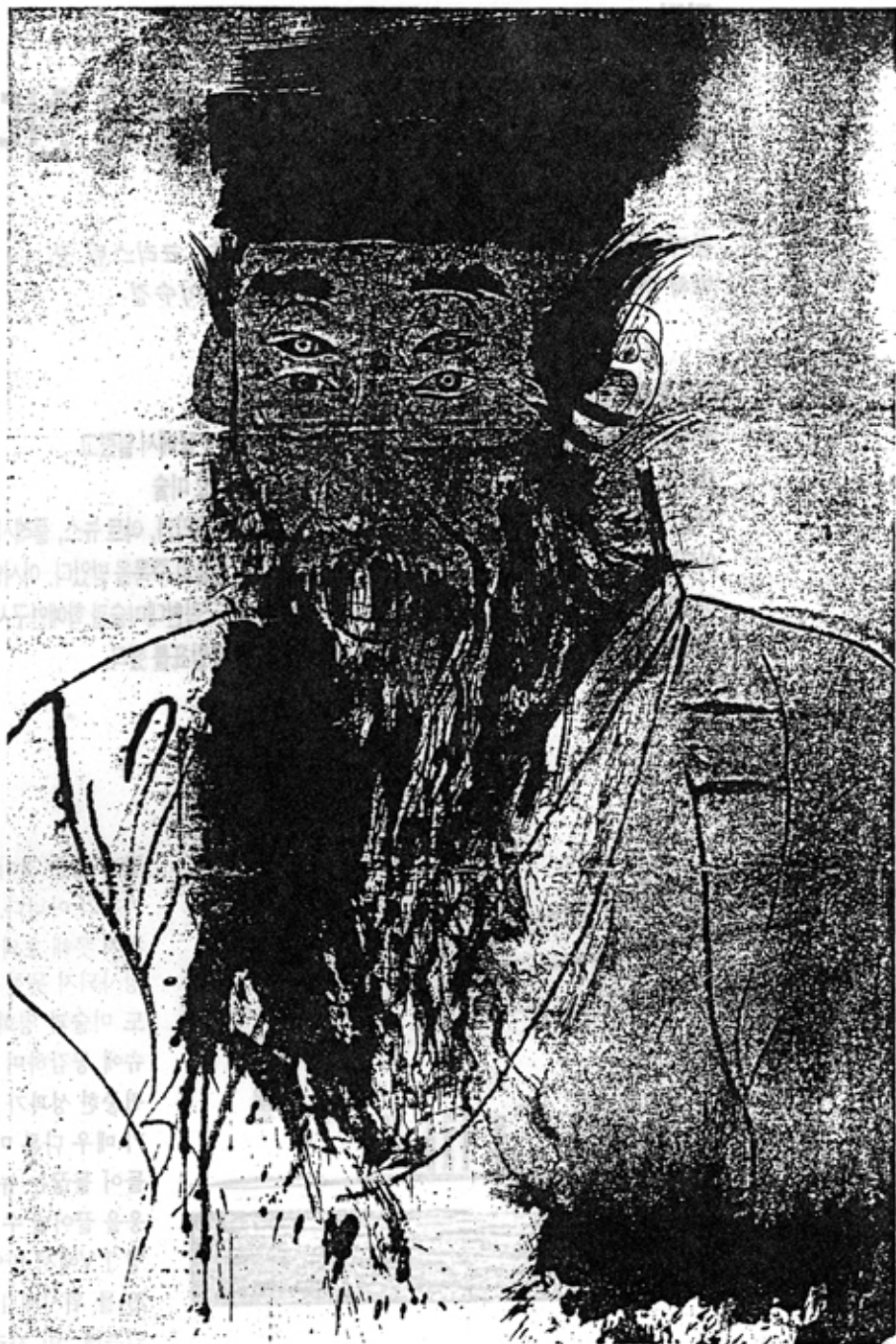


# 행방 미술매

이드인 코리아'라는 제목이 붙은 최정화의 빈지르르한 도시적 이미지(실제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 안에 있는가? 김홍주의 린넨 실의 수염을 가진 현자(賢者)의 초상이 한국 여성의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수경의 「나 자신과 결혼하기」보다 더 많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김호석의 4개의 환각적인 눈을 가진 조선시대 초상을 모조한 작품이 「남자의 가방」이라는 제목이 붙은 안규철의 기업 샐러리맨의 무력함을 표현한 여행가방보다 더 한국적인가?

아래층에 11명의 이주한 미국 출생의 미술가들(5명은 여성이다)은 잡종교배된 정체성의 문제들을 탐구하고 있다. 「엄마」라는 제목의 바이런 킴의 피부색의 모노크롬은 혈육이 아닌 고려 청자 유약의 조상을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회색과 초록의 캔버스들을 전시하고 있다. 마이클 주의 소금 덩어리, 구충제, 그리고 인조 땀과 눈물의 합성물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고정관념, 열광 소비, 그리고 남성의 정체성을 암시하고 있다. 다른 제치있는 작품들은 데이비드 정의 드로잉, 김영의 패널, 이진의 날말들, 윤진미의 스크린, 박모의 진화 평풍 테이블, 그리고 비디오와 영화들을 포함하고 있는 두개의 문화와 '의식의 식민지화' 사이의 부유상태를 다루고 있다.

민족성과 '외국계 시민'의 정체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한 최근의 선입견에서, 우리는 국가적, 민족적, 개인적 정체성이 충돌하고 희미해지고 분기되는 곳인 혼란스러운 경계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태평양을 건너서」전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현재 미술계의 이슈를 까다롭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이다. **김** (번역/이경인·미하)



김호석 「저항 VI」 한지에 수묵 135X102cm 1988

김 레빈 (Kim Levin) 은 뉴욕의 진보적 성격의 대중 주간지 《빌리지 보이스》의 고정 필자이다. 《아트 메가진》의 편집자이자 《오푸스 인터내셔널》 《플레이 아트》의 기고가로 1986년 신문 비평가상을 수상했고, 1992년 국제미술비평가협회(AICA)의 미국대표를 지냈다. 저서로는 7,80년대 미국미술을 비평한 저서 《모더니즘을 넘어》(1988)와 국제미술평론가협회 2차 발표대회의 글들을 모아 《장벽과 전쟁을 넘어: 미술, 정치학 그리고 복합문화주의》(1992)를 발간했다. 현재 미국 저널리즘 미술비평을 움직이는 중요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인 그녀는 1987년 호암 갤러리에서 열린 「뉴욕현대미술전」을 큐레이팅하여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